

청렴 근육을 키우자

‘예민함의 쓸모’라는 수상작을 읽었습니다. 오랜 시간 장인어른께서 병석에 계셨기에, 그 환자의 마음도 모르는 바 아니나,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간호사의 처지를 생각해보니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규칙을 어길 법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곤 얼마 전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매일 공항으로 출근합니다. 일주일에 며칠씩 공항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저는 공항에서 근무하는 세관 공무원입니다.

올해 꿈에 그리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었다는 성취감과 함께 좋아하는 공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솔직히 십 대 마냥 조금 들떴습니다. 관복을 입고 관세국경을 지키는 건, 영화에서 보던 히어로 같은 느낌이겠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근을 하고, 임명장을 받고, 소속된 부서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제 착각을 깨달았습니다. 잠시나마 들뜬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장소나 외향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 바다로 국경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그사이에 범망을 피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제대로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고,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세금이나 수입/수출물과 연계가 있어 그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관 공무원이 된 제게 축하하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오. 축하해. 이제 외국에서 혹시 비싼 거 사면, 너한테 연락한다.”는 친구도 있었고, “와~ 세관 공무원이야? 나 다음에 한 번 눈감아줘~”하는 선배도 있었습니다. 축하의 인사니 처음엔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찝찝했습니다. ‘정말 연락을 한다면, 전화를 받아야 하나, 눈감아줘야 하나?’ 웃고 있으면서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끝엔 저도 모르게 정색을 하게 됐습니다. “응. 연락해도 안 돼!”, “아, 눈뜨고 감시하는 게 제 일인데, 눈감으면 안 되죠~”라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축하 인사를 받는 자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갑/

분/싸'(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다)가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잠시 싸해졌습시다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게 장난으로라도 무리한 부탁을 하지 못하겠다 싶었기에.

그러면서 동시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자주 지나가던 거리의 쇼윈도에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다음 날에도, 그다음 주에도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면 사람들은 '아~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도, 누구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만약 제가 그냥 '허허. 그래그래. 전화해' 라고 가벼이 웃어 넘겼다면, 어느 날 그 중의 누군가 제게 전화를 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나 공향인데, 내가 산 게 사실 얼마 비싸지도 않아. 네가 좀 봐줄 수 있니?"라고 하면 저는 당황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요청에 순간의 판단력이 흐려질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나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렴도 만약의 상황을 생각하고, 거절하는 법 등을 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긴장해야 한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부터 저에게 부탁하는 건 '가능하지 않은 일',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로 규정한 것은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사소한 사건이었는데, 청렴이란 대단히 높은 자리의 사람들만이 조심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규칙을 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들을 계획적으로 하게 될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예민함의 쓸모'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자신도 모르게 환자가 준 선물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잘못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순간의 당황스러움과 판단 착오로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부정한 일을 한 자신을 부정하기 위해,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겐 '운동 근육'이라는 것이, 생각을 많이 하는 이들에게엔 '생각 근육'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특정 부분을 지속해서 쓰고 관리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엔 '청렴 근육'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육으로 자리 잡힐 만큼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고, 머릿속으로도 훈련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옳은 길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지하철 출퇴근길에 '청렴 근육'을 키우기 위한 상상 훈련을 합니다. 좀 엉뚱한 훈련입니다. "가족과 다름없는 가까운 분이 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만약 오늘 마주칠 나쁜 사람이 내가 알고 지내는 지인이라면?"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이 되기 전에 '청렴'이란 단어는 TV나 뉴스를 통해서만 접했습니다. 주로 정치 문제나 거물급 인사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렴'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일상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공항에 갑니다. 가는 길, 오는 길이 훈련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민함을 생활화하여, '청렴 근육'을 키워가겠습니다. (끝)